

# 증단기 국제유가 전망

沈相烈

〈에너지경제연구원·정보분석실장〉

**원유** 현물가격은 금년 1/4분기중 계속 上昇, 3월말에는 배럴당 18달러 公示價格 수준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유가수준이 아직은 중장기 추세의 시발점으로 보이지 않는다. 국제유가는 수급구조상, 향후 1~2년餘의 조정기를 거친후 점진적 상승을 보일 전망이다.

최근의 석유수급구조는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시장몫 증가로 집약된다. 세계 석유소비 증가, 非OPEC 석유공급량 둔화는 그 요인이 되고 있다. 세계 석유소비는 80년대 전반에 연간 2% 감소하였으나, 후반 들어

서 연간 2.7% 증가세로 반전됐다. 국제유가와 石油원 단위(GDP단위당 석유소비량)의 관계는 이같은 소비 구조를 여실히 보여준다. 선진국의 석유원단위는 과거, 배럴당 35달러 油價下에서 매년 5% 감소하였고, 배럴당 20달러 油價時 1.8% 줄어든 반면, 배럴당 15달러 油價時에는 매년 0.5% 감소에 그쳤다(表-1 참고). 즉, 선진국은 高油價시기인 1979~85년동안 석유소비를 줄이면서 2%의 경제성장을 이루하였으나, 低油價 시기인 80년대 후반에는 연평균 2.6%씩 석유소비를 늘리면서 경제성장은 연평균 3.2%씩 성장하였다.

〈表-1〉 선진국(OECD)의 에너지원단위 분석

	期間別 에너지가격과 원단위 감소추이			
	70~73	74~78	79~85	86~87
국제에너지가격 (\$ /B) <sup>1)</sup>				
아라비안라이트	\$ 5.0	\$ 20.4	\$ 34.9	\$ 15.7
천연가스 <sup>2)</sup>	\$ 5.3	\$ 11.4	\$ 20.5	\$ 16.1
연료탄(fob) <sup>2)</sup>	\$ 6.5	\$ 12.4	\$ 10.5	\$ 7.6
(cif) <sup>3)</sup>	\$ 9.2	\$ 18.0	\$ 15.2	\$ 10.8
에너지원단위 변화율 (%/年)				
1차에너지	-0.7	-1.6	-2.4	-1.1
석유	+1.5	-1.8	-5.0	-0.5
석탄	-6.1	-2.5	+0.8	-1.7
가스	-1.0	-2.7	-2.3	-3.1
원자력	+27.7	+21.6	+9.0	+3.8

〈註〉 1) Pipeline Gas(네덜란드의 대프랑스 수출가격).

2) 호주연료탄

3) 日本의 호주탄 도입가격

4) 87년 不變價格

그 결과, 세계 석유소비는 최근, 연평균 약 100만 B / D 증가해 왔다. 이러한 소비구조는 최소한 90년 대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세계 경제가 향후 몇 년 동안 연평균 3%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국제석유가격은 향후 2~3년 동안 급증 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非OPEC의 석유생산량은 1986년 유가폭락 이후 그 증가폭이 크게 둔화됐다. 또, 현재의 석유 탐사·개발동향을 살펴볼 때, 非OPEC의 석유생산량은 향후 불과 몇 년 내에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非OPEC의 석유매장량은 80년대 前半中 年 2%씩 증가해 왔으나, 후반에는 0.9%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88년 중 非OPEC가 가동한 리그수는 85년의 50%에 불과했다. 석유 탐사·개발 기술이 향상되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현재의 탐사활동은 미래의 생산정책을 암시해 주고 있다.

공산권을 통틀어 볼 때 자유세계는 중장기적으로 공산권의 석유수출에 크게 의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공산권의 석유수출량이 과거, 출곧 증가하여 현재 약 250만B / D에 이르고 있지만 공급구조는 취약하다. 왜냐하면, 공산권은 매장량을 확대하지 않고 생산만을 加速해 왔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석유수급구조를 종합해 보면,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지 않는 한 OPEC原油에 대한 세계수요(이하, OPEC 原油수요)는 적어도 매년 약 100만B / D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表-2 참고). 이러한 수급시나리오하에서 OPEC의 產油量政策은 유가결정의 주요 변수가 된다.

〈表-2〉 OPEC原油에 대한 세계수요  
(단위 : 백만 B/D)

	시나리오		
	I <sup>1)</sup>	II <sup>2)</sup>	III <sup>3)</sup>
1988(실적)	19.4		
1990	21.3	20.6	19.2
1992	24.8	22.6	18.5
1995	31.0	26.0	18.1

〈註〉 1) 油價 \$ 15 내외, 세계경제성장 3~5% / 年

2) 油價 \$ 20 내외, 세계경제성장 2.8~4.0% / 年

3) 油價 \$ 30以上, 세계경제성장 2.8~4.0% / 年

OPEC원유수요가 2,100~2,200만B / D 이하일 경우, OPEC은 油價인상전략보다 시장몫확대에 보다 높은 정책배려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제유가는 향후 1~2년동안 배럴당 18달러 公示價格을 중심으로 소폭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80년대 후반중 OPEC의 產油量정책은 一時的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물량확대와 물량감축의 반복적 행태를 나타냈다. 즉, 1986년과 1988년에는 시장몫확대에 비중을 두었고, 1987년과 1989년 1/4분기에는 물량감축에 보다 높은 정책배려를 하였다. 이 결과, 국제유가는 배럴당 10~18달러의 큰 움직임을 나타냈다. OPEC의 產油量정책이 이처럼 유동적인 것은 OPEC원유수요가 근본적으로 OPEC의 희망생산수준보다 낮기 때문이다. OPEC가 희망하는 원유 생산량은 현재 2,100~2,200만B / D로 추정되고 있다. OPEC가 2,100~2,200만B / D의 원유를 생산하고 배럴당 18달러 公示價格을 유지한다면 OPEC는 대외교역의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OPEC의 유가인상정책은 OPEC원유수요가 2,200만B / D에 이르는 90년대 초반경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OPEC는 유가인상을 추구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원유소요를 유지하기 위하여 급격한 유가인상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OPEC는 또한, 5~6년 내에 과거와 같이 배럴당 30달러 이상의 유가를 바라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OPEC가 배럴당 30달러 이상의 油價를 고집한다면 OPEC는 80년대 전반과 같이 시장몫축소 = 油價약세 경협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非OPEC의 最高生産費用(배럴당 25달러 수준), 代替에너지 開發費用(배럴당 30달러 이상) 등을 감안해 볼 때, 국제유가는 향후 1~2년후 부터 점진적으로 상승, 90년대 중반경 배럴당 25달러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表-3 참고).

지금까지 살펴본 中期 國際石油市場의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油價강세는 구조적 추세로 정착될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금년도 OPEC원유수요는 1,900~1,950만B / D로 전망되고 있어 OPEC는 아직도 생산량확대에 비중을 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유가는 금년 비수기중 배럴당 1~3달러 하락조정된 후 금년 하반기에는 배럴당 15~2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보

〈表-3〉 장기 유가전망

기관	1990	1995	2000	年平均 上昇率(%)
USDOE <sup>1)</sup>	\$14~\$20	\$18~\$27	\$25~\$40	5.6%
DRI <sup>2)</sup>	\$16	\$18	\$24	4.1%
WEFA <sup>3)</sup>	\$15~\$18	\$19~\$22	-	
PEL <sup>4)</sup>	\$14~\$18	\$17	\$22	3.2%
JIEE <sup>5)</sup>	\$15~\$18	\$20~\$23	\$24~\$26	4.2%

〈註〉 1) US. Department of Energy

2) Data Resources Inc.

3) Wharton Economic Forecast Associates

4) Petroleum Economics Ltd.

5) Japan Institute of Energy Economics

일 전망이다.

끝으로 국제에너지시장의 최근 동향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국제 石炭가격은 현재 상승분위기에 있다. 호주산 燃料炭 수출가격은 최근 톤당 3달러 정도 상승, 톤당 40달러 수준을 타나했다. 中國, 남아공화국 등 주요 석탄수출국은 금년도 價格協商時 탄가인상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炭價上승은 공급압박 요인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외화획득을 위해 의욕적인 석탄수출목표를 설정하였으나, 1988년도 수출실적은 1,500만톤으로 목표대비 200만톤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호주의 1988년도 석탄수출량은 전년대비 2% 감소하였다.

한편, 국제천연가스시장은 아직까지 공급압박 여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Shell group과 Gafferey & Cline 會社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의 국제계약만으로도 천연가스공급은 90년대 중반까지 세계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 천연가스 계약의

관행을 볼 때, 石油, 石炭 등 천연가스의 경쟁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 천연가스가격은 同伴上昇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계약상 천연가스가격은 原油, 석유제품, 石炭가격 등에 연동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石油, 石炭, 천연가스 등 化石에너지의 국제가격이 상승무드 또는 상승우려를 보임에 따라 原子力發電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1975년이래 108개에 달하는 原電 건설계획을 취소하였고, 체르노빌사고 후 미국 원전업계는 더욱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최근 石油輸入依存度증가,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부족위기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核發電 산업의 범국가적 활성화 대책수립을 모색하고 있다. 구체적 대안은 R & D 프로그램 확대, 시범원전건설, NRC(Nuclear Regulatory Committee) 조직개선, 우라늄산업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 □ 도서안내 □

# 88년 石油年報

- 대한석유협회 기획부 -